

도시의 이해

제1절 도시를 만나다.

1.1 도시의 탄생

도시는 고대부터 이미 존재하여 왔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으로 존재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부분은 도시라고 하는 구분된 공간에서 살고 있다.¹⁾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왔으나, 도시의 어떤 한 측면 또는 구조의 일부는 해명되어어도, 그 복잡한 본질과 전체상은 영원한 수수께끼일지도 모른다.

카우퍼(J. M. Cowper)의 “신은 전원을 만들었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도시의 가치를 신의 창조물과 견주어 높이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도시의 탄생에 대한 성격규명의 모호함을 신비함으로 감추고 있기도 하다. 도시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가장 깊은 통찰력을 가졌던 루이스 면포드도 그의 역작인 『역사 속의 도시(The City in History)』에서 긴 역사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도시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을 서술하고 있다.²⁾ 우리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도시의 탄생과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밝혀진 바로는 인류는 최초에는 특정한 공간에 정착하지

1)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국토해양부의 기준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산정한 2011년 도시계획통계에서는 91.9%로 발표되었으며 세계도시전망지표에서는 전체 인구 중 도시지역 거주인구로 산정하여 2011년 현재 83.2%로 산정하고 있다.

2) 도시의 특성과 발전에 대해 약간의 이해를 얻는 데 5천년의 시간이 걸렸으므로 여태까지 나타나지 않은 도시의 잠재적 가능성을 규명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 현대도시가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나은 통찰을 얻기를 원한다면 역사의 지평선 끝까지 투시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유사 이전의 구조물과 원시적인 기능의 희미한 흔적까지도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루이스 면포드, 김영기 역, 1990 : 2).

않고 이동하면서 수렵과 채취를 통해 식량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자연의 조건에 적응하면서 살아왔으며 그 기간은 도시가 만들어진 이후의 기간보다 훨씬 길었다. 그러나 약 5,000년 전에 비로소 농업혁명이라 불리는 농경·목축생활의 시작으로 정착생활이 시작되었고 특정한 공간이 생산과 보관에 적합하고, 각종 자연재해나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하였으며, 자연적으로 종교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가 되면서 작은 취락에서 시작된 도시의 원형들은 점차 국가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고 그 중심공간으로 자리하면서 그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도시의 원형이 처음 나타난 것은 기원전 3,0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현재의 이라크 부근)으로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에 접하여 비옥한 대지가 있던 곳이며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4대문명발생지 모두 큰 강과 접하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탄생한 도시는 신성함을 담는 종교의 중심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문명의 중심지, 문물과 화폐의 거래를 통한 부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면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신분과 권위를 함께 나타내는 기능적 공간이면서 권위적인 공간으로 발전하였다. 도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도시가 담아야 하는 기능이 변화하였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도시의 경계와 형태가 달라졌으며 수많은 국가와 문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오늘날까지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기반이면서 원동력이 되어왔다는 점은 분명하다.

1.2 도시의 발달 또는 성장

100년 전까지만 해도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세계인구의 10%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1년 현재는 약 80%의 인구가 도시 속에 살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50년대 25%에 불과하던 도시인구비율이 2011년 92%에 달할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도시의 발달은 단순한 도시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나 도로망의 건설에 따른 시가지의 확장과 산업 생산량과 교역량의 증대를 통한 경제력의 성장 그리고 다양한 활동과 정보량의 증대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시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지의 확산이나 고층건물의 증가와 같은 물리적인 지표와 다양한 사회·경제적인 지표들의 변화로 파악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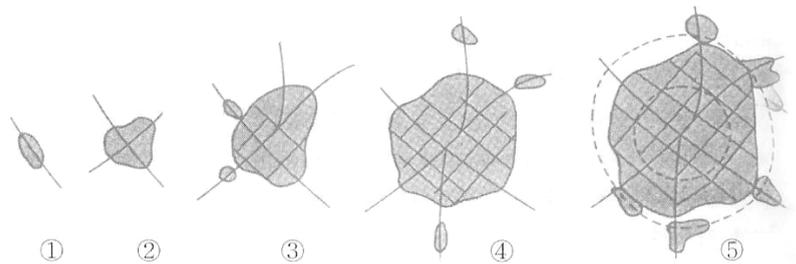
도시의 발달을 유기체적인 성장으로 비유한 페트릭 게데스의 설명을 빌리자면 도시도 생물체처럼 유년기·소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를 거치게 되며 어떤 원인에 의해 사멸되기도 한다. 촌락에서 도시로 발전하는 과정상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3) 김철수(2006), pp. 23~24

고대와 중세까지의 도시성장의 특징은 첫째는 시가지 면적의 확대와 인구의 증가, 둘째는 성소와 성벽·성채의 건설, 셋째는 도시의 경제적 발전에 따른 시장의 등장과 교통의 발달이었다.

산업화에 따른 근대도시의 성장은 공업생산기술의 혁명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통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성립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발전시켰으나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응할만한 도시계획이나 정책의 마련 없이 급속히 성장장한 도시환경은 급속히 악화되었고, 주택·교통·위생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여 도시는 과밀화·슬림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기법의 개발을 통해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을 맞게 되었다.

20세기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간적인 변화는 도시공간의 광역화·입체화 및 도시설비의 체계화이다. 특히 도시의 범위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해진 것은 자동차의 발달에 의한 이동의 고속화·광역화가 가장 직접적인 것이었고, 전화와 TV등의 대중매체의 발달은 분리된 공간을 결합시키면서 공통의 문화생활을 공유하는 유대감을 높이게 되었다. 엘리베이터와 철강구조를 이용한 건축기술의 발달 등은 고층빌딩의 등장과 함께 도시경관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공중위생법을 시초로 하여 도입된 각종 제도와 상·하수도를 비롯한 각종 도시설비의 발달에 따라 도시는 공간의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의 개선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도시의 기능을 첨단화 고도화 시키게 되었고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단계에 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그림 1-1〉 교통축과 도시성장의 패턴 예시

제2절 도시를 알다.

2.1 도시의 정의

우리가 사용하는 도시라는 말의 어원은 중국의 도성(都城)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도(都)는 천자(天子)가 거주하는 궁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고, 성(城)은 공간의 경계가 되는 성벽을 의미하고 있다. 이후 도성은 시장(市場)의 기능이 도시의 주된 기능으로 추가된 후에 도성의 도(都)와 시장의 시(市)가 합쳐진 도시(都市)라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즉 ‘도시’라는 명칭은 한자로 도(都)와 시(市)의 복합어로 都는 황제와 문무양반의 주재지로 정치·행정의 중심지이고, 市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전(市廛)이 있는 시장기능의 중심지를 뜻한다. 그러므로 한자를 풀이해서 보았을 때 도시는 3차 산업적 기능을 가진 지역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산업혁명 이후 공업이 도시의 주요기능으로 되면서 도시는 2·3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발달한 것이다.

영어로 도시를 의미하는 ‘City’는 프랑스어 ‘Civitas’에서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용어에서 ‘Civilization’(문명 : 文明)이라는 단어도 파생되었다. 도시에 대한 정의는 관점이나 연구분야에 따라 다양하므로 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무의미할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도시에 관한 정의를 다섯 가지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구적 측면

도시는 일반적으로 인구규모와 기능에 기초하여 촌락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법적으로 도시를 규정한 행정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규정상의 도시이다. 그러나 인구규모를 이용하여 도시와 비도시를 구분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실체를 파악하기보다는 오히려 통계를 위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은 도시의 최소인구규모를 2,000명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과 멕시코는 2,500명, 인도와 호주는 5,000명을 도시의 최소규모로 보고 있다. 영국과 스페인은 10,000명, 우리나라와 일본은 50,000명, 중국은 100,000명으로 보고 있다.

인구규모에 추가하여 인구밀도도 도시를 정의하는 가장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기준에 의한 도시의 정의는 국가마다 면적과 토지이용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인 합의에는 도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국가의 농촌인구 밀도가 다른 국가의 도시인구밀도보다 더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다 실제적으로 도시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의 구성비율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1차 산업의 종사인구에 비해 2차·3차 산업의 종사인구의 비율이

높은 곳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표 1-1〉 국가별 도시규정에 대한 기준

국 가	도시의 기준
영 국	County Boroughs, Municipal Boroughs, Urban Districts, London Administrative County
노 르 웨 이	공식적으로 Urban으로 지정된 Cities와 Towns
스 웨 덴	도시적 행정을 시행하는 Cities와 Towns
아이슬랜드	주민 300인 이상의 Towns
네 델 란 드	주민 2만인 이상의 Municipalities
벨 기 예	주민 5,000인 이상의 행정구역
스 위 스	주민 1만인 이상의 자치체(自治體, communes)
프 랑 스	Town 중 2,000인 이상의 자치체(自治體, communes)
체코슬로바키아	주민 2,000인 이상의 행정구
오스트리아	주민 3,000인 이상의 자치단위
그 리 스	주 Town 중 주민 5,000인 이상의 Municipalities와 Communes
이탈리아	인구의 50% 이하가 농업에 종사하는 Communes
포르투갈	주민 2,000인 이상의 Places
스 페 인	주민 2,000인 이상의 Places
미 국	인구 2,500인 이상의 Places 및 5,000 이상의 Cities 주변의 Suburban Area
캐 나 다	법정 Cities, Towns, Villages
멕시코	주민 2,500인 이상의 Places
파 나 마	주민 1,500인 이상의 Towns
베네수엘라	주민 2,500인 이상의 Places
콜롬비아	Municipalities나 Districts의 수도인, 주민 1,500인 이상의 Places
브 라 질	Districts의 중요 Town과 그 Suburban Towns
아르헨티나	주민 2,000인 이상의 Cities, Towns, Villages
칠 레	인구 1,000인 이상의 Places
이집트	행정중심과 주요 Towns 혹은 Provincess와 Villages
인 디 아	주민 5,000인 이상의 Cities와 Urban Towns
일 본	인구 5만인 이상의 Cities
뉴질랜드	인구와 관계없이 Cities와 Boroughs

출처 : 홍경희, 1981 : 21.

2) 정치적·행정적 측면

대부분의 국가는 도시를 하나의 자치단체로 인정하고 그 세력권이나 발달역사를 존중하고 있다. 앞서 인구규모의 구분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

치법에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 읍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며, 도시와 주변 농촌을 통합한 통합시라는 행정단위도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시에 대한 정의를 살펴 보면, 지적 엘리트를 포함한 각종 비농업적 전문가가 많은 곳(G. Sjoberg), 주민의 대부분이 공업적 또는 상업적인 영리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곳(M. Weber), 인공환경이 우월하며, 인구구성의 이질성, 사회계층화의 심화, 유동성과 익명성이 강한 곳(P.A. Sorokin & C.C. Zimmerman) 등이 있다.

도시의 본질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도시는 다양한 생각과 사고(思考)가 서로 만나는 터전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사상을 담은 창고이며, 농촌과는 구별되는 다양한 거주형태와 사회적인 공간배치로 도시마다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는 토양이 되는 곳(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 1999)으로 정의되고 있다.

4) 기능적 측면

도시의 기능은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다. 고대국가의 도시의 기능은 왕권이나 신권의 과시였으며, 잉여생산물을 기반으로 식량생산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문가 집단을 도시 속에 집적시켜 각종 정보의 축적과 개발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도시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도시는 사회제도의 중심부로서 정치·행정조직·종교 등의 중심지기능을 담당하고, 농업과 공업 생산물을 거래하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상업활동과 교통의 중심지이고 문화의 중심지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최근들어 도시의 주된 기능으로 정보통신의 중심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도시의 중심성을 결정해 온 교통의 역할을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거리를 극복함으로써 도시의 집중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문제로 나타날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다.

5) 시설·환경적 측면

도시는 시설적인 측면에서 고층건물군과 도로, 상·하수도, 기타 물리적인 여러 시설이 집적된 지역이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환경이 계획적으로 정비된 공간으로, 고도의 다양한 인간활동을 담는 그릇으로서 공통적인 인공적·물리적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물들은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도시를 구분하고 규정하는 뚜렷한 요소가 될 수 있다.

2.2 도시의 유형

도시의 유형의 분류기준으로는 지형·지세, 위치, 구조, 경관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서는 ① 계층적 분류, ② 법제적 분류, ③ 기능적 분류, ④ ‘에키스틱스’(Ekistics) 분류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1) 계층적 분류

가. 지위적 분류

도시의 중심성을 기초로 한 분류가 바로 지위적 분류이다. 도시는 국가의 중심이 되는 기능을 하는 수도와 그 외의 지방도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방도시는 지역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에 따라 중심도시와 주변도시로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의 지위적 구분은 인구규모와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 대체로 도시인구의 규모에 비례하여 도시의 중심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나. 인구규모별 분류

도시의 인구규모에 따라 거대도시·대도시·중소도시·소도시로 구분하고 있다. 대체로 거대도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인구 50만명 이상, 중소도시는 10만명 이상에서 50만명 이하, 소도시는 10만명 이하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규모의 기준은 국가별·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인구규모에 따른 도시분류는 가장 쉽게 자주 이용되고 있는 도시구분의 방법이기도 하다.

2) 법제적 분류

우리 나라의 도시는 지방자치법과 특별법 등의 규정에 의해 ① 특별시, ② 광역시, ③ 일반시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일반적인 법제도시(일반시)와 특수한 법제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특수한 법제도시는 주로 대도시와 관련된 도시로, 그 존재성격이나 행정수요면에서 중소도시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지정되고 있다. 또 특별시와 같이 수도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한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다.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광역시 이상의 도시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승인권력을 갖고 있으며, 광역시나 특별시가 아닌 도시들 중에 인구 50만명 이상과 10만명을 기준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권한과 의무에 차이를 두고 있다,

3) 기능적 분류

도시의 기능은 다양하여 행정기능처럼 그 범위를 책정하고 수행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기능은 그 미치는 범위가 명확치 않다. 다만 소도시에 비해 대도시의 기능은 넓은 권역에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담당기능의 특이성을 기준으로 도시를 분류하면 종합도시, 행정도시, 광업도시, 공업도시, 상업도시, 교육도시, 연구도시, 군사도시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초기에는 정치나 방어, 광산 또는 공장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점차적으로 종합도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과천시나 세종시와 같이 정부의 행정기능을 도시의 주요기능으로 설정하거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처럼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거나 기업이 도시개발을 주도하는 도시 등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4) 에키스틱스적 분류

‘에키스틱스’(Ekistics)는 그리스의 도시 및 건축학자인 독시아디스(C.A. Doxiadis)가 사용한 용어로서 인간정주의 과학, 즉 인간생활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그는 도시사회 및 도시규모의 변천과정을 통해 인간생활 공간체계를 <표 1-2>와 같이 15가지로 분류하고, 이 가운데 여섯번째 단계인 근린주구까지를 도시형성 이전의 생활공간으로, 일곱번째 단계인 소도읍부터 도시형성 이후의 생활공간으로 보고 있다.

<표 1-2> 독시아디스의 공간분류

인구(population)	지역사회규모(community scale)	면적(area)
1인	개인(individual; man)	3m ²
2인	방(room)	15m ²
4인	가족(family; dwelling)	50m ²
40인	취락(dwelling group)	0.005km ²
250인	지구(small neighborhood)	0.03km ²
1,500인	근린주구(neighborhood)	0.2km ²
9,000인	소도읍(small town)	1.7km ²
50,000인	도시(town)	7km ²
300,000인	대도시(large city)	40km ²
2,000,000인	거대도시(metropolis)	300km ²
14,000,000인	집합도시(conurbation)	5,000km ²
100,000,000인	대상도시(megalopolis)	80,000km ²
700,000,000인	도시권역(urban region)	0.8Mkm ²
5,000,000,000인	대륙도시(urbanized continent)	6Mkm ²
30,000,000,000인	세계도시(ecumenopolis)	40Mkm ²

2.3 도시의 특성

1) 도시특성의 개념

도시특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도시지역과 도시가 아닌 지역(비도시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된다. 상식적으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쉽다. 인구규모, 인구밀도, 서비스의 수와 범위, 고용구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사회학적인 관점에서는 도시적 생활양식과 비도시적 생활양식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상점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모두 있다. 도시지역의 상점이 비도시지역의 상점보다 크고, 전문화되어 있으며, 숫자도 많고, 더 큰 시장범위를 가지지만, 상점이라는 요소를 도시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격으로는 볼 수 없다. 즉 눈에 보이는 차이는 정도의 차이이지 근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지역의 독특한 특징들은 실제로는 특별하다기보다는 단지 차이가 있다는 점일 뿐이다. 상이한 지역과 상이한 조건하에서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단순히 이러한 차이에 반영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도시는 장소의 자연적이고 고유한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연구에 공간적 초점을 제공하기 위해 지리학자와 여타 사회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편의상의 명칭이요 구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T. Hall, 유한중 외 역, 1999 : 37).

2) 도시의 경관적 특성

도시는 농촌과 비교하여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밀도가 높다. 예를 들어 일정의 면적에 건축물의 면적비를 산출하여 도시내부의 밀도분포를 살펴 본다면 분명해진다. 그리고 도시가 성장해 감에 따라 주변부의 도시적 토지이용도 확대되어 간다. 접근성이 높은 토지는 수요가 높고, 그 경합에 의해 높은 지가를 형성하게 된다. 높은 지가의 토지는 결국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도심부에 고층의 건축물군이 집중하는 것은 도시 내의 토지이용이 집약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한 단면이다.

도시경관은 각각의 장소의 자연적 환경에 영향 받게 되고, 사회적·경제적·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문화권에 따라 각각 다른 도시경관이 형성된다.

제3절 도시에서 살다.

3.1 도시의 구성요소

도시가 하나의 조직체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구분되는 도시의 구성요소로 크게 시민(Citizen), 활동(Activity), 토지와 시설(Land & Facility) 등을 들 수 있다.

1) 시 민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시민(citizen : 市民)이다. 시민은 개개인으로 본 인간이기도 하고, 인간의 집합인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시민은 가장 기본적인 도시구성요소인 동시에 도시의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2) 활 동

시민들은 도시라는 한 지역사회에 모여 살면서 구성원 개개인의 생존과 번영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활동(activity; 活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필연적으로 하게 된다. 이러한 활동 속에는 개개인의 의·식·주에 관련된 일상적인 주거활동, 개인이나 기업의 부의 축적 내지 이윤추구를 위한 경제활동, 보다 윤택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화여가활동, 이러한 여러 활동을 연결시켜 주기 위한 교통·통신활동, 그리고 이상의 여러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정·관리해 주는 공공부문의 행정활동 등이 포함된다.

3) 토지와 시설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활동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수용해 주고 뒷받침해 주는 각종 시설(facilities)이 필요하고, 또 시설물이 배치·건설되기 위해서는 토지(Land)가 필요하다. 이들 토지(土地)와 시설(施設)들이 도시공간에서 물적으로 나타나면서 도시형태를 만들어내게 된다.

도시시설에는 주택이나 상점·사무실·학교·교회 등과 같은 건물, 도로·광장·주차장·교량 등과 같은 교통시설, 시청·경찰서·우체국·소방서 등과 같은 행정기관, 상하수도·도시가스 및 공동구 전기 및 전화의 송배전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있다.

토지와 시설은 도시활동을 담으면서 도시의 성격을 결정하고, 또 도시성격에 영향을 미쳐 활동을 결정짓는 상호작용 속에 도시의 기능을 만들어내고 있다.

3.2 도시의 기능

1) 구조적 측면

도시는 인간정주형태의 한 유형이다. 촌락-도시의 연속개념의 맥락에서 볼 때 도시는 다수의 조밀한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취락(settlement)의 한 형태로 인구분포상의 고밀도 주거지역이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 다양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시가지라는 점이 농촌과 구별되는 점이다.

또한 도시는 도로·철도·자동차·상하수도·쓰레기처리·학교·병원·도서관과 같은 하부구조시설과 주택·궁전·사원·상점과 같은 부를 상징하는 상점건물군과 같은 인공물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집결되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

특히 산업혁명 이후의 도시는 고용구조의 기반이 주로 비농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도시의 산업활동인구 대부분이 2차·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적 기준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반 이하이면 도시’라고 정의된다. 즉, 도시는 비농업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기준에 의한 도시의 정의는 한 국가 내에서 도시화의 정도와 도시분포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도시는 생산과 서비스기능의 중심지로, 농촌은 원료생산지역으로 구별되어 왔으나, 이러한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결점이 있다.

3) 사회적 측면

사회적 측면에서 도시는 매우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요소(직업, 가치관, 신념, 종교 등)를 가진 사람들로 집합된 장소이다. 사회문화적 기준에 의하면 ‘도시는 농촌에 비해서 규모가 크고, 문화적으로 이질적이며, 사회적으로 다양성을 지니는 장소’라고 정의된다. 즉 도시에서 인간관계는 공동사회 혹은 1차 집단의 관계라기보다는 이익사회 혹은 공식적인 역할관계이며, 사회조직의 형태는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유기적이다.

도시민은 농촌주민에 비해 전문성·공식성·계층성·신속성·제도성과 같은 사회적 조직의 규제를 보다 많이 받는다.

3.3 도시의 공간

1933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제4회 근대건축국제회의에서 도시에서 발생하

는 기본적인 기능으로 주거, 노동, 여가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교통을 4대기능으로 정하고, 여기에 교육, 유통 그리고 공급처리기능을 추가하여 7가지의 활동기능으로 나누고 있다. 도시의 기능들은 자연이나 경제·사회적인 조건 그리고 주변지역과의 관계에 적합한 위치에서 발생함으로써 도시의 토지이용을 형성하게 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들을 담는 주요 기능공간으로 주거활동을 담는 주거공간, 노동과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생산 및 서비스 공간, 위락과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여가공간,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1) 주거공간

주거공간은 인간이 생활하는 1차 생활공간으로 도시민의 소득차이에 따라 분리되고 주택의 유형에 따라 단독주택지역, 연립주택지역 그리고 아파트지역 등으로 구분되며 주민들의 소득과 주거기호에 따라 주거지를 정하게 된다. 주거의 결정요인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담능력과 사회공동체로서 근린간의 관계가 고려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는 종교나 인종의 구분에 따른 주거지의 분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2) 생산 및 서비스공간

생산공간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공간이고 근대도시에서는 2차산업 중심의 생산공간이 주로 해당하였지만 현대도시에 들어서서는 3차산업의 상업·지역들로 변화하고 있다. 생산공간은 주로 도시의 외곽에 위치하지만 상업·업무지구는 도시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의 중심핵을 구성하고 있다.

3) 위락 및 문화공간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기본에 되는 활동이 되지만 인간의 생산능력의 향상과 경제적인 잉여가 발생한 후에는 각종 오락이나 문화활동들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를 위한 위락 및 문화공간의 중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위락 및 문화공간은 사회현상과 연령계층 그리고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고 국가별 종교나 생활양식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4) 보조공간

도시활동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주거와 생산 그리고 위락활동

4)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2006) pp. 24~26.

외에도 이들 활동을 보조하고 연결시켜주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공원이나 광장과 같은 면적인 공간과 도로, 철도, 통신과 같은 선적인 시설이 포함되고, 도시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기능인 상하수도과 에너지 그리고 폐기물처리 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차지하는 공간이다.

3.4 살기 좋은 도시 - 살고 싶은 도시

도시에서 인간의 기본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안전성(Safety), 보건성(Health), 편리성(Convenience), 쾌적성(Amenity)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안전성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이고, 보건성은 시민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이 지켜지는 것이며, 편리성은 생활의 편리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확보되고 유지되는 것을 말하고 끝으로 쾌적성이란 시민들의 생활의 질적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문화·예술적인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도시대상”에서 살고 싶은 도시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첫째, 도시는 주거, 직장, 복지, 교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초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면서 도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해주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여야 한다. 둘째, 활기찬 경제기반을 갖추어 풍부한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여야 한다. 셋째, 도시가 가지는 역사적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를 창출하며 경관적으로 조화롭고 자연과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여야 한다.

이처럼 건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도시의 건설단계서부터 환경과 생태를 고려한 입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통합성을 고려하여 거주, 근로, 여가의 세가지 기능과 이를 연결하는 교통이 제공되어야 하며,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도시를 만들고 가꾸어가며 주민들이 계속 머물러 살고 싶은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1. 강대기, “현대도시론”, 민음사, 1987
2.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편, 알기 쉬운 도시이야기, 한울, 2006
3. 김 인, 도시지리학원론, 법문사, 1991
김 인, 박수진 편, 도시해석, 푸른길, 2006
4. 김영기 역, 역사 속의 도시, 루이스 멈포드, 명보문화사, 1990
5. 김찬호 · 이창수 · 우윤석, 『지속가능한 신도시개발을 위한 한국형 압축도시모형 정립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지 제42권 2호, 2007.
6. 김철수,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2006
7. 김혜천 외, 현대도시의 이해, 대왕사, 2002
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 도시계획론 5정판, 보성각, 2009
9.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패러다임 변화의 의미, 도시정보, 통권 제295호, 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2006.10.
10. 도시계획연구회 편, 도시계획 텍스트북, 대우출판사, 1994
11. 손정목, 한국현대도시의 발자취, 일지사, 1990
12. 유한중 외 역, 현대도시의 변화와 정책, 팀 홀, 푸른 길, 1999
13. 임희지,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신-전통주의계획이론분석 연구 -우리나라 도시개발 기법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32권, 2001
14. 이정형 역, Hiroo Fuzita 저, 도시의 논리, 도서출판 국제, 1995
15. 최봉문, 임영택, 지방자치단체의 u-City 개발 동향 분석과 개발방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6권 제1호, 2006. 1.
16. 하성규, 김재익, 도시관리론, 형설출판사, 1998.
17. 한정섭 역, 도시계획, 히가사 다다시, 집문사, 1988
18. 황용주, 도시계획원론, 녹원출판사, 1983
19. 홍경희, 도시지리학, 법문사, 1981